

학문윤리는 왜 중요할까요?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며, 학문탐구의 목표는 진리 추구에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자연의 섭리와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학문탐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학문탐구 과정에는 탐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력,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비판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종합적인 이해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만으로 학문탐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학문탐구 윤리입니다.

학문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나 이제 막 학문탐구를 시작한 학부생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연구윤리'라고, 학부생과 같은 초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칭합니다. '연구윤리'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라면, '학습윤리'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입니다. 부연하자면 수강,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등과 같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합니다.



🔍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① 대학에서의 학문 탐구의 목표가 진리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학문 탐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② 정직한 학습활동만이 학습능력을 배양해주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노력에 기반하지 않은 학습활동은 자기 능력을 계발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이고 정직한 학습활동만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생산 능력을 길러줍니다.

③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면서 익혀야 하는 것은 다양한 학술적 지식만이 아니라 학문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올바른 학문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학문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정직하지 않은 학습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룬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표절 행위, 아무런 노력없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행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등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습에 임한 많은 학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대학에서의 학습윤리 적용 범위

학습윤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예를 들어 출석, 과제물 작성 및 제출, 협동학습, 시험 등 모두에 적용됩니다.

1 출석

출석은 학습활동의 성실성을 확인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사이버대학에서의 출석은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를 출석인정 요구시간까지 수강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강의를 수강하는 행위는 성실성의 확인 과정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2 과제물 작성 및 제출

대학에서의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자신의 학습 내용을 담아 그 결과를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과제물에 학습자 고유의 사고와 표현을 담을 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제물 작성 및 제출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는 위조 및 변조, 표절, 중복제출 등이 있습니다.

- 위조는 과제물의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과제물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와 변조는 학습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 학문적 진실성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방법, 내용, 표현, 결과 등을 정확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 중복제출은 다른 교과목에서 이미 제출한 과제물을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로, 하나의 과제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3 협동학습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행위이므로 항상 자신의 성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무임승차란 협동학습을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참여자와 동등하게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동학습 과제는 공동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무임승차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얻으려는 행위이므로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4 시험

대학에서의 시험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은 공정한 평가를 필수요건으로 합니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란 실시간 시험에서 시험지, 시험 답안을 캡처하여 공유하거나 허락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①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와 쓰면서 마치 자신이 생산한 것인 양 속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 출처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 전부 혹은 일부를 가져와 쓴 경우
- 출처의 제시 없이 여러 사람의 글을 가져와 짜깁기한 경우
- 출처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쓴 경우
- 출처의 제시 없이 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을 가져와 쓴 경우

② 변조

변조는 사실을 왜곡해서 기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문헌자료를 왜곡하는 경우
-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 연구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경우
- 연구 방법을 조작하는 경우
-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 재료·장비 및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③ 위조

실험이나 관찰, 혹은 조사 등을 통해 얻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과를 만들어내어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연과학 연구에서 실험, 관찰, 시뮬레이션 등에 의하지 않고 허위로 결과 혹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행위
- 사회과학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꾸미는 행위
- 책을 읽지 않고 읽은 척하거나 책의 일부만 읽고 전체를 다 읽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인 양 꾸미는 행위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허위로 꾸며내는 행위이므로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④ 과제물 구매 및 양도

-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 과제물 판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과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는 행위
-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 받아 제출하는 행위
-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과제를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속여 과제물을 제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이는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5 중복제출

중복제출이란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
- 이미 제출한 과제물의 일부를 다른 과목에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정, 짜깁기하여 제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6 시험부정행위

시험부정행위란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시험 도중 시험지, 시험 답안을 캡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허락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대리 시험을 부탁하거나 행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7 강의자료 유출

강의에서 제공되는 강의노트 및 기타 수업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 사이트에 공유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136호는 '저작권법,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강생이 저작물이 포함된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레포트 표절 사례

한 사이버 대학의 사례입니다. 학생(A)이 수강 중인 과목의 과제를 작성 하던 중 인터넷에서 과제 주제와 부합하는 논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인터넷 속에는 수많은 논문과 에세이가 있기에 전부가 아닌 일부 내용만 가져다 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판단해 인용한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그대로 레포트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 사례에서 A가 했던 행위의 비윤리성은 '타인의 저작물 무단 사용'이라는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다소 변경하여 자신의 것 인양 다른 사람을 속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레포트 일지라도 반드시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

② 과제물 양도 사례

본 사례는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받아 제출한 사례입니다.

몇 년 전 국내 한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A강사는 학기 말 과제를 채점하던 중 익숙해 보이는 과제를 발견해 3년 전 학생들에게 받았던 과제들을 모두 뒤진 끝에 99% 이상 똑같은 과제를 찾아냈습니다. A강사는 그 학생에게 F학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적 확인 기간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공격적인 불만을 담은 항의전화를 받은 A강사는 본인의 반성을 요구했으나 학생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학생은 과제물을 양도 받아 제출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A강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선배의 과제물을 참조하려고 받았는데 자신이 작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 보여 그대로 제출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A강사는 그에게 진정성 어린 반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이 사례에서 과제물을 양도한 것이 한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협력에 의한 기획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이는 한 학부의 교육과정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3 시험 부정행위 사례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A 사이버대학 학생 4명은 전공과 무관한 프로그래밍 인터넷 강의를 모두 만점 받았습니다. 사이버대학의 특성 상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과 시험 감독관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관련 전공 학생을 미리 섭외해 시험을 본 것이죠. 시험 당일 단체 메신저 방을 개설해 섭외한 학생이 제공하는 답안을 공유하고 밥을 한 끼 사주는 식으로 대가를 제공했습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온라인 강의의 교육이념을 악용해 우수한 학점을 취득한 셈입니다. 또한 이들은 출석 점수 역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재생해 강의를 보지 않고도 정상적인 출석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험 도중 답안을 공유하기 위해 사전에 단체 메신저 방을 모집하여 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08016	Ocu 영화로 배우는 자연재해	포꼬당	2019.03.05.
108014	OCU 미술치료 초대부탁드려요~~ [2]		2019.03.05.
108009	사래로 배우는 생활마케팅 단톡방 초대중요~ [1]	OCU 학생	2019.03.05.
108008	건강과 다이어트요법 2분반 방 들어갑니다.	으아의이외	2019.03.05.
108007	OCU 경찰과 사회 단톡방 초대부탁드립니다 [1]	꾸꾸까까	2019.03.05.
108005	끌리는사람들의유쾌한커뮤니케이션 초대 부탁드립니다.	김형순	2019.03.05.
108003	세계영화기행 단톡초대	산토	2019.03.05.
108002	Ocu 생활속의 심리학 단톡 초대중 부탁드립니다 [3]		2019.03.05.
107997	★★OCU100세 시대를 위한 운동과 영양★★ 단톡 구합니다! (5명) OCU 하는 과목마다 A+받았어요!!		2019.03.05.
107994	ocu 결혼과가족 초대부탁드립니다당 [2]	테드고심다	2019.03.05.
107991	지중해문화와산책 단톡방 초대부탁드립니다	그맘	2019.03.05.
107990	OCU 호신술과 자기방어 단톡방 모집중입니다 [6]	오주연	2019.03.05.
107988	경찰과사회 단톡방 초대부탁드립니다 a+경험두번! [1]		2019.03.05.

△ 시험 도중 답안을 공유하기 위해 단체 메신저 방을 모집하는 실제 커뮤니티 캡처 화면

➡ 이 사례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임에도 시험 도중 답안 공유, 타인이 대신해서 시험을 치뤄주는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로, 정당한 노력없이 좋은 성과를 얻고자 하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4 유출되는 강의자료 사례

최근 한 A대학의 학생이 수강 중인 온라인 수업의 강의 장면을 녹화하고, 더불어 학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강의노트를 재가공하여 무단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를 무단 배포한 학생은 이러한 배포가 불법임을 몰랐고, 선배들도 다 이렇게 공유하고 시험을 위해 재가공하여 배포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 이 사례는 현행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수자가 창작 및 재해석한 강의자료, 시험 문제 등은 저작물로 포함돼, 무단 배포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 사용의 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에 학생 간 시험에 관한 정보 전달차원의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무단 배포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게 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5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예절 사례

한 대학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비방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프 특강이 있어 주말 시간을 내어 학교에 갔는데 △△ 학부 K 교수는 실력이 너무 없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교수들하고 다르다.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교수를 하는 지 모르겠다. K 교수에게 배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 이 사례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강의실의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숨기며 거짓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른 언어습관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게시판 등의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드리며, 근거 없는 비방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를 바르게 표시하는 방법

출처는 주석과 참고문헌에 의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주석과 참고문헌은 자기 글에서 설명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설명이나 근거를 검증 받기 위한 수단이자 학문의 성과, 학문적인 정직성을 인정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석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과 본문 아래에서 표시하는 방법(각주)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한 저서·논문·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시한 목록으로 글의 맨 끝에 실어 놓습니다. 주석과 참고문헌은 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석의 표기 방식과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인용부분에서 출처를 제시하면서 참고문헌에서도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중 인용부분에서 출처를 제시할 때 주석을 사용하느냐 또는 본문에 간략히 나타내느냐에 따라 <상세한 출처 표기법>과 <간략한 출처 표기법>으로 구별됩니다.

① 상세한 출처 표기법

(1) 주석에 의한 출처 표기법

ㄱ. 저서의 경우

- 동양서 ▶ 글쓴이,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 서양서 ▶ 글쓴이, 책이름,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 번역서 ▶ 글쓴이, 『책이름』, 옮긴이,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ㄴ. 논문의 경우

- 동양논문 ▶ 글쓴이, 「논문 제목」, 『학술지명』 제○권, 학술지 발행기관,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 서양논문 ▶ 글쓴이, "논문 제목", 학술지명, vol.○,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ㄷ. 신문기사의 경우

-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발간 일자, 게재면수.

ㄹ. 인터넷 매체 기사의 경우

-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 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접속일자).

ㅁ. 사전류의 경우

- 「항목이름」, 『사전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2) 참고문헌에서의 출처 표기법

주석에서 출처를 제시한 문헌들도 참고문헌 목록에 다시 적어야 합니다. 참고문헌은 국내논저와 국외논저로 구분하고, 다시 저서와 논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이 때 국내논저는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국외논저는 저자성의 알파벳순으로 정렬합니다. 인터넷 자료나 신문기사 등은 기타자료로 제시합니다.

참고문헌에서 필요한 항목은 글쓴이, 논문 제목, 책이름(혹은 학술지명,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입니다.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방법 역시 학문분야나 학회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문헌 작성요령은 주석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논문의 경우는 인용한 쪽수를 명시하지 않으며 학술지에 수록된 첫 쪽수 ~ 끝 쪽수를 적어줍니다.

② 간략한 출처 표기법

(1) 본문에서의 출처 표기법

<간략한 출처 표기법>은 각주가 아닌 본문에 글쓴이,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공,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인용한 부분 끝에 괄호를 이용하여 간략한 서지정보(글쓴이,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를 기재합니다. 완전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합니다.

(2) 참고문헌에서의 출처 표기법

<간략한 출처 표기법>은 본문에서 글쓴이와 출판연도로 논문 제목 혹은 책이름을 대신하고 완전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합니다.

<간략한 출처 표기법>의 논문 제목과 책이름을 나타내는 방식이 학문분야와 학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에서 제시한 <상세한 출처 표기법>과 동일하게 나타내어도 무방합니다.

[출처]

- 정종진, 최선경, 하병학 『학습윤리 가이드』 2014.
-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s://www.cre.or.kr>)
- 매거진 한경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2164855d>)
- 이현숙·김병철(2013) 사이버윤리와인간의이해. 한국외대출판부

